

추상화가 최욱경을 재조명하다...국제갤러리서 개인전

September 7, 2016 | 권혜진 기자

page 1 of 2

유족 소장 1960~1970년대 작품 70여점 전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45세에 심장마비로 요절한 추상화가 최욱경(1940~1985)의 유작이 공개된다.

국제갤러리는 다음달 30일까지 고(故) 최욱경 화백의 회화 70여점을 모은 개인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최 씨가 미국에 체류하던 1960~1970년대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 유족이 보관하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욱경의 '무제' [국제갤러리 제공]

최 씨는 20년 남짓한 활동 기간 가운데 15년을 미국에 체류하며 작업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운보 김기창, 우항 박래현 부부의 화실에서 미술 지도를 받은 최 씨는 1963년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뒤 미국 크랜브룩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매우 드문 미국 유학생 중 한 명인 최 씨는 그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추상표현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그의 초기 작품에선 자유분방한 붓질과 강렬한 원색의 대비가 나타난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추상표현주의 양식을 소화한 최 화백은 이후 자신만의 필체를 찾아나선다.

이에 따라 후기로 갈수록 작품에서 추상회화의 형상이 지워지고 작가의 조형적 고민과 함께 형상의 귀환을 목격할 수 있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인종 차별과 흑인 폭동, 베트남 전쟁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1968년 전후로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 등장한다.

1970년대 작품에선 한국의 전통적인 색감과 뉴멕시코의 자연에서 받은 영감이 묻어난다. 이 시기 작품에는 장판지, 문창호지, 먹 등이 재료로 활용된다.

이는 작가가 1971년부터 3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서예와 민화를 연구한 것에 기인한다.

1974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작가는 1976년 뉴멕시코 라스웰미술관의 지원으로 뉴멕시코주에 체류하는데 이를 계기로 율동성이 살아있는 곡선과 노랑, 분홍, 파랑 등 밝고 부드러운 색채를 활용한다.

1978년 귀국한 작가는 이후 한국의 자연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룬다.

전시작에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최육경 개인전 설치 전경 [국제갤러리 제공]

이번 전시는 당시 한국 미술계를 지배하던 단색화나 아방가르드 외에 제3의 미술 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가 있다고 국제갤러리는 강조했다.

갤러리 측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최 씨의 예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최 씨의 전작도록(카탈로그 레조네) 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성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은 "고인이 미국에 체류한 시기 국내는 한국 아방가르드로 지칭되는 행위미술이나 설치작업, 단색화 운동과 국전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경향으로 양분돼 있었다"며 "이 모든 진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며 당시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7/0200000000AKR20160907071200005.HTML?input=1195m>